

충청권 주택사업경기 얼어붙는다

이달 전망지수 하락... 주택사업자 부정적 전망 커져

충청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얼어붙고 있다.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북 모두 두 달 연속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PF프로젝트 금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회의적 시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대전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

지수가 60.0으로, 전월(71.4)보다 11.4P 떨어졌다. 전망지수가 5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다 지난 11월부터 2달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 주택사업경기지수는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100 이상이면 사업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세종의 이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0.5로 전월(81.2)보다 10.7P 하락하며 70선대로 후퇴했다.

충남과 충북 이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56.2로, 전월과 같은 전망치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50.0으로 전월(69.2)보다 19.2P 하락하며 주택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졌다.

이달 전국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82.4→91.9)가 상승한 것은 유가 하락, 공급망 애로 다소 개선과 함께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지수(65.5→71.6)는 지난해 11월(37.3)을 기

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준선(100)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택건설수주지수의 경우 재건축(89.2→88.7)로 0.5P 소폭 하락했고, 재개발(83.9→95.1)은 11.2P 상승했다.

주산연은 “고금리 기조 등 영향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금리상승세가 완화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용배 기자 yk425@dailycc.net

“기차 타고 핸드볼 경기 입장권 할인 받자”

코레일, 당일 열차 승차권 제시하면 'H리그' 20% 할인

코레일이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의 대중화 및 기차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H리그 경기 입장권 20%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핸드볼 통합리그인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가 새로 출범했다. 경기는 서울과 광주, 광주, 부산, 청주 등 전국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양 기관은 경기 당일 열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20% 할인을 제공한다. 23일 청주를 시작으로 리그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운영한다.

입장권 할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매 모두 가능하다. 예매 사이트에서 '코레일 할인' 권종을 선택하거나, 현장에서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이용률 등을 반영해 핸드볼 경기 관람과 함께 지역 관광도



할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국 핸드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기차여행도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c.net



코레일테크,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코레일테크가 지난 18일 대전 본사 HRD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조대식 코레일테크 대표이사(의장)를 위원장으로 두고 총 4명의 내부위원과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인권경영 계획, 제도,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인권 경영 추진 내용, 2023년 인권경영평가 시행결과 보고, 인권경영평가 권고사항 확정을 논의했다.

(사진=코레일테크 제공)

'상상프렌즈 17기' 모집

KT&G, 165명

KT&G가 대학생 종합커뮤니티인 상상유니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상프렌즈 17기'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오는 1월 3일부터 29일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전국 대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165명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상상유니브를 대표하는 상상프렌즈 17기로 활동한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각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로컬워크'와 봉사·진환경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쉐어워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상상프렌즈 전원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이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과 해외자원봉사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시형 유니브운영부장은 “상상유니브는 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5G 스몰셀 세계 최고 수준 3Gbps 성공

ETRI, 5G 특화망 핵심기술... 사업화 시 비용·시간 절감

ETRI가 중대역과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연결성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향후 스마트 공장, 국방망 등 5G 특화망에서 데이터의 기가(Gbps)급 통신속도가 기대된다.

19일 ETRI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운링크 3Gbps를 제공하는 '5G 스몰셀 기지국 SW 기술'로, 유캐스트와 컬럼, 콘텔라,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가했다.

이중연결성 기술을 통해 밀리미터파 스몰셀 기지국을 5G 단독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이 단산 데이터 전송속도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5G 상용화 이후 고속전송에 강점이 있는 밀리미터파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링크 성능향상, 자동화된 기지국 운용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의 성과도 선보였다.

ETRI의 이번 성과는 5G 기지국과 관련해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축적한 결과라는 평가다. 김일규 이동통신연구본부장은 “5G 기술만으로 밀리미터파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말 최대 전송 속도를 3Gbps까지 달성했다”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고 밀리미터파 스몰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해당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특허 139건, 국제 표준 27건, SCI(E) 논문 26건, 기술이전 8건의 성과를 냈으며, 최근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일본, 브라질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c.net

충청권 수출 '회복 조짐'... 감소세 둔화

지난달 대전 5.6% ↓ · 세종 8% ↑ · 충남 6.1% ↓

충청권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 수출이 증가했으며 충남은 12개월 동안 이어지던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달 대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한 69억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 8% 증가한 1억2400만 달러, 충남은 6.1% 감소한 69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수입은 2.5% 감소한 3억6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 수입은 4.5% 줄어든 1억400만 달러, 충남은 5.9% 감소한 36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세종이 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33억5700만 달러 적자를 달성했다. 수출은 충남과 대전 최대 수출 품목인 집적회로 반도체(충남-4.3%, 대전-

10.0%), 충남 4위 품목인 전산기록매체(충남-44.3%)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세종 1위 품목인 인쇄회로(세종 29.2%)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남 1위 수출품목인 집적회로반도체(-4.3%)는 그동안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수출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충남-11.8%, 대전-22.3%), 중국(충남-8.0%, 대전-24.3%), 미국(충남-20.3%)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

LH, 최대 59만2000원

LH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이어간다. 19일 LH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간다. 지원 예상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올해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따뜻한 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인포그래픽' 공개

주요 연혁 · 성과 담아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연혁 및 성과를 조망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19일 산림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한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별 한 눈에 보는 기술인회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산림기술인회 날' 기념행사의 첫막을 올리고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썼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따뜻한 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산림기술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ycc.net

산림복지진흥원, 한파·폭설 대비 시설 점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만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올겨울 가장 한파에 대비해 산림복지시설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19일 진흥원에 따르면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 및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점검을 가졌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달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안전일터 조성의 날'로 지정해 안전사고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시설·장비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 4일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는 동절기에 대비해 시설 동파·동해 방지를 위한 점검과 난방·온열 기구 등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마치고도 했다.

최근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면서 진흥원은 안전 조치이행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폭설 대비 현장 대응 사항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적설·결빙 대비 제설 자재 및 응급 장비 확보, 보일러 및 옥의 물탱크 배관시설 동파 방지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난로·온열기기 화재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기습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지속적인 시설·장비 점검과 더불어 화재 등의 안전사고 대비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c.net

중부산림청·청주시, 공동산림사업 MOU

상당산성 힐링숲·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은 충북 청주시와 18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은 잘 가꾼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의 산림문화 휴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당산성 힐링숲 및 선도산 하모니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국유림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

용하여 복합 문화공간 및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산림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해 잘 가꾼 국유림에서 국민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병석 청주시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